대전도시철도1호선2단계개통기여로대통령표창수상

이상권 금성백조 상무이사

“ 항상 내가 살 집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공사에 임해 ”

아파트 브랜드 ‘ 예미지로 잘 알려져 있는금성백조는주택을잘짓는업체로 정평이 나 있다. 그래서 지역의 중견 건설업체이지만대전 · 충남에서는서울의 대형 건설업체 못지않은 아파트 분양률을 자랑한다. 최근에는축적된기술력을바탕으로수도권과해외주택시장을적극공략하고있다.

하지만금성백조가주택, 특히아파트를 건설하는 데만 주력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공공건축공사에서도발군의시공능력을보이고있다. 튼튼하고아름다운 주택을건설하면서기술을 축적하고, 열심히새로운건설기술을개발한덕분이다.

이 회사의 이상권 상무가 지난 달 8일 대전도시철도1호선 2단계 개통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것은 금성백조의 기술력과 사업관리 능력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이다. 그는갑천역, 월드컵경기장역, 지족역, 반석역등4곳의정거장시설공사(통합 공구)의 현장 소장으로서 철저한 품질 관리와 현장 관리를 수행하여 대전도시철도의 무사 개통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더욱이 대전도시철도 건설 공사는 이 회사가 참여한 최초의 지하철 공사라서 그의대통령표창수상의의미는더욱클수밖에 없었다.“ 철저한 품질 관리로 고객 만족을사업의이념으로삼고있는회사와임직원들의 우수한 기술력 덕분이므로 이 영광을금성백조에돌립니다. 특히, 국내굴지의 대형 건설업체들을 제치고 수상한 만큼 커다란보람을느끼고있습니다. ”

그는 도시철도 공사를 수행하면서 항상 집을 짓는 마음으로 시공에 임했다고 말했다. 1만 세대 이상의 주택을 지음으로써 축적된회사의품질관리와기술력을공공시설물에 그대로 적용하면 틀림없이 좋은 성과를가져올것이라고확신했기때문이다.

여기에서울, 부산, 대구, 광주등도시철도건설 현장은빠짐없이 찾아다녔다. 처음 접해본 공사인 만큼 이미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업체로부터배워야할점이많았던것이다.“ 사업을수주하고나서처음으로하는 지하철공사를제대로할수있을지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전국의여러곳을답사하면서 우리 회사의 기술력에 벤치마킹한 요소들만 보태면 대전에 새로운 이정표를 남길수있겠다는자신감이생겼습니다. ”

이에 그는 꼼꼼한 품질 관리와 안전 시공을 독려하는 한편, 준공 후 도시철도 시설물이 150만 대전 시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그가총괄하였던정거장공사현장은 지난해 말 대전시로부터 최우수 시공상을 수상하였다. 특히, 월드컵경기장역에치우천왕부조벽화를설치하여발주처와시민들로부터좋은평가를얻었다.

이상권 상무는 건축하는 일이 즐겁다고 한다. 현재 본사 사옥 신축 등 6곳의 건축현장을총괄하면서이른아침부터시간가는줄모르고일에빠져든다. 그는“ 19살의 어린 나이부터 시작해 30년 가까이 해온 일이지만새로운건축물을지을때마다더 잘짓겠다는열정이샘솟는다 ”고말했다.

그의 이러한 열정은 집안 내력과 연관이 있어보인다. 조부는우리나라사찰 건축을 선도해온고건축시공도편수였다. 그는조부의 유지를 받들어 천안공고 건축과에 입학하였고, 3학년 때에는 기능인들의 최고 목표인 기능올림픽대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하였다. 조부의건축목공소질을그대로물려받았다하기에부족함이없다.“ 아직도저는 기능인이라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 대패등을다루는능력은아직녹이슬지않았다고자부합니다. 기업 이윤을 사회에환원하는기업주의솔선수범이저를감동시켰듯이저는항상내가살집을짓는다는각오로 공사에 임해 고객들이 감동하는 건축물을 만들어가겠습니다. ”CJ

이형우 · 기자 · hwlee@cerik.re.kr